| 국어는 이감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파이널Ⅱ 제8차 예비평가 정답과 해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8차 예비평가

국어 영역 정답표
(홀수) 형

공통과목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8	②	2	35	②	2	35	②	2
2	①	3	19	②	2	36	④	2	36	②	3
3	⑤	2	20	⑤	2	37	⑤	3	37	③	2
4	②	2	21	⑤	3	38	③	2	38	①	2
5	③	2	22	①	2	39	①	2	39	①	2
6	④	2	23	③	2	40	①	2	40	④	2
7	④	2	24	⑤	3	41	③	2	41	⑤	3
8	④	3	25	④	2	42	⑤	2	42	④	2
9	②	2	26	②	2	43	④	2	43	③	2
10	②	2	27	④	2	44	②	2	44	①	2
11	①	2	28	⑤	2	45	④	3	45	⑤	2
12	⑤	3	29	②	2						
13	③	2	30	④	3						
14	④	2	31	①	2						
15	①	2	32	③	2						
16	③	2	33	③	2						
17	⑤	3	34	①	3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파이널Ⅱ 제8차 예비평가 해설

• 공통과목 •

[1～3] 독서론

1. [출제의도] 지문에서 독서 방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 2'가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된 것은 평소 해당 주제에 관심이 많아 오랫동안 관련 단체에서 봉사 활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독서 활동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며, 내용적으로는 받아 봤던 구질의 공이어서 능숙하게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더 가깝다.

[오답풀이] ① 저자가 글을 쓰는 것은 공에 움직임을 주는 것과 같다. '학생 1'이 칼럼과 책의 읽는 방법을 달리한 것은 이에 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학생 1'이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한 것은 칼럼을 먼저 읽었기 때문이다. 이는 받아 봤던 구질의 공을 능숙하게 받는 것에 해당한다. ④ '학생 2'가 책을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은 것은 적극적인 독서 태도에 해당한다. 이는 포수가 공을 받을 때 적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 ⑤ '학생 2'가 책을 통해 고민을 많이 해소한 것은 저자가 쓴 책의 내용이 평소의 관심에 부합하여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투수와 포수의 호흡이 딱 들어맞은 것에 해당한다.

2. [출제의도] 지문과 <보기>로부터 적절하게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베이컨에 따르면 모든 책을 동일한 방식으로 읽을 것이 아니라, 책에 따라 그 읽는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 또한 지문에서는 포수가 구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공을 받는다는 비유가 제시되어 있다. 이로부터 책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 독서의 방법을 달리하여야 함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② 베이컨이 능동적인 책 읽기가 해가 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베이컨이 강조한 것처럼 책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그 읽기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능동적인 책 읽기에 해당한다. ③ 베이컨은 모든 책을 완전하고 충실하게 소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떤 책은 단순하게 맛만 보거나, 심지어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④ 베이컨은 책에 따라 읽는 방법을 다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을 뿐, 저자를 참고하여 읽을 책을 선정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⑤ 베이컨은 모든 책을 집중하여 읽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어떤 책들은 단순하게 맛만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3.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학생에게 조언할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독서 활동에 대해 고민을 토로한 학생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은 주제여서 독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나)의 '학생 2'는 평소 관심을 가진 주제를 다룬 책이어서 집중해서 꼼꼼하게 읽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 2'의 관점에서 그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민을 해 본 뒤에 다시 읽어 보라고 조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이 책을 읽을 때 메모를 한 이유는 궁금한 점을 기록해 두기 위해서였을 뿐,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고민을 제기한 학생이 읽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② 고민을 제기한 학생 역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책을 읽는 것이므로, 목적에 부합하는 책을 고르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 1'과 '학생 2'가 성공적인 독서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자의 집필 의도를 고려했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④ 고민을 제기한 학생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책의 수준이 높기 때문이 아니라 평소 관심을 가지지 않은 주제였기 때문이다.

[4～9] 사회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17쪽

4. [출제의도] 학생의 독서 활동지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명예 훼손에 관한 형법의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과 이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등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여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나)는 인터넷 명예 훼손죄의 가중 처벌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 관련해 찬성론과 반대론이라는 상반된 견해를 제시하여 논의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는 적절하다. (가)와 달리 (나)는 인터넷 환경의 구축이라는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설된 인터넷 명예 훼손죄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 역시 적절하다. 다만 (가)에서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5.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형법상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대상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비방한 이는 형법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명예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②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려면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주관적 평가인 의견을 드러낸 것은 명예 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 때에는 명예 훼손이 아니라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④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을 한 경우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 훼손을 한 경우 모두 인터넷 명예 훼손죄가 형법상 명예 훼손죄보다 최대 형량이 더 높다. 다만 이는 최대 형량일 뿐 형법상 명예 훼손죄로 처벌받는 이가 인터넷 명예 훼손죄로 처벌받는 이보다 형량이 더 많을 수도 있다. ⑤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에 따라 인터넷 명예 훼손죄의 성립 요건인 비방 목적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다. 비방 목적의 유무에 따라 명예 훼손을 한 이에게 적용되는 법이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일 수 있다.

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법 조항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공연히 적시하는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조항은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는 것은 개인의 명예 같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② 명예 훼손에 관한 형법 조항이 공적 인물이나 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는 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이지, 조항 자체에 그런 비판적 보도를 제한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출판물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형법 조항에 제시된 구제 수단이 아니다. 이는 민사적 구제 수단에 속한다. ⑤ 명예 훼손을 당한 이는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조항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7.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 입장들을 적절하게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2002년 헌법 재판소는 인터넷의 쌍방향성에 주목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경고하였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 훼손에 대한 가중 처벌 찬성론자들은 가중 처벌을 주장할 때 인터넷의 쌍방향성에 주목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인터넷의 쌍방향성보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의 유해성에 더 주목하여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답풀이] ① 가중 처벌 찬성론자들은 자율 규제 가능성이라는 인터넷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유해성과 심각성에 주목하면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가중 처벌 반대론자들은 인터넷에서의 명예 훼손을 다루는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해당 사안을 형법에서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가중 처벌 반대론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명예 훼손죄를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⑤ 2002년 헌법 재판소는 인터넷 명예 훼손에 대한 가중 처벌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인터넷에서의 규제가 표현의 자유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8.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갑'이 인터넷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인터넷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갑'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적시한 것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면 인터넷 명예 훼손죄가 아닌 형법상 명예 훼손죄가 적용될 것이다. 또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적용할 수 있어서, '갑'이 게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갑'의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정답풀이] 2심 법원이 '갑'의 죄를 감형한 것은 가중 처벌되는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처해지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그만큼 감형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갑'이 '을'의 게재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받을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감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답풀이] ① 인터넷 명예 훼손죄와 관련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때에는 게시물의 표현 방법 등이 판단 대상이 된다. 따라서 1심 법원에서 '갑'의 게시물의 표현 방법까지 고려한 것은 비방할 목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② 인터넷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명예 훼손을 한 이에게 비방할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야 한다. 1심 법원에서 '갑'에게 인터넷 명예 훼손죄를 적용한 것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③ 2심 법원은 '갑'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는데,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적법한 것으로 판결해야 한다. 그러나 '갑'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므로 2심 법원은 '갑'이 공표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⑤ 정보통신망법 대신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이다. 따라서 형법을 적용한 2심 법원은 비방의 목적이 부인된다고 본 것인데, 이는 '갑'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과 관련된다.

9. [출제의도] 문맥을 고려하여 표현을 적절하게 바꿔 쓸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폭넓게 적용되어 어떤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무죄 판결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중 처벌이 없어져 처벌의 수위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는 '가급적 가중 처벌을 지양한'으로 바꾸어 쓸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민사적 구제 수단은 바로 위의 문단에서 언급한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를 의미한다. ③ 문맥상 허위 사실임을 이유로 함부로 규제하는 것은 확실하게 사실로 판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들을 함부로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는 '사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하여 모두 처벌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비방할 목적은 해를 끼치려는 의사 내지 목적을 의미한다. ⑤ 여기서 지나친 규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터넷에서의 규제를 의미하므로 ⓔ는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억압될 수 있음을'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0～13] 인문

➔ 연계 지문 : 수능완성 226쪽

10.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괴델에 따르면 '산수'의 모든 참인 진술들 중 F에 의해 증명되지 않는 진술이 적어도 하나 있다. 즉 '산수'를 이루는 참인 진술들이 모두 증명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① '튜링 테스트'는 '튜링 머신'과 같은 기계가 인간의 사유 및 언어 능력의 작용과 구별될 수 없는 작용을 보이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이를 통과한 기계는 '약한 인공 지능'으로 간주된다. ③ 데이비스는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인정하지만, 이 정리와 인공 지능의 불가능성 논증 간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인공 지능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④ '중국어 방 논증'은 중국어 방의 '갑'과 중국어를 이해하는 중국인을 비교하는 상황으로서, 만약 '갑'이 답변 카드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계가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과 유사하다. ⑤ '중국어 방 논증'은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갑'이 중국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떤 기계가 '강한 인공 지능'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11.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특정 대상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괴델에 따르면 '괴델 문장'은, 인간은 그 참을 알지만 기계는 참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그대로 구현하는 인공 지능의 실현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오답풀이] ② 데이비스에 따르면 '산수의 형식적 이론 체계' F의 일관성을 개별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확실히 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별 인간이 자신의 능력으로 괴델 문장의 참을 확실히 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괴델 문장은 보통의 문장을 자연수로 표기하는 특정 방식에 따라 만든, 자기 지시적 의미를 갖는 문장이다. 괴델 문장 S는 'S는 F에 의해 증명 가능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④ 괴델에 따르면 괴델 문장은 인간인 수학자가 그 참을 알지만 기계는 참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괴델은 인간인 수학자는 F의 일관성을 알기 때문에 괴델 문장의 참을 안다고 주장한다. ⑤ 괴델 문장 S는 'S는 F에 의해 증명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 만약 F에 의해 증명된다면 모순이 발생하는 문장이다.

12. [출제의도] 지문을 참고하여 학자들의 견해에 보인 반응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설명] 가상의 논리학자 K는 데이비스와 유사하게 '산수의 불완전성 정리'를 인정하지만 이를 통한 인공 지능의 불가능성 논증은 거부한다. 그는 데이비스와 달리 '괴델 문장은 참인가?'라는 물음 Q에 기계 M은 대답하지 못하지만 인간은 대답할 수 있다는 점까지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계산 기계가 인간에서 발견되지 않는 무능력을 보여 준다고 보지는 않는다.

[정답풀이] 데이비스는 괴델 문장의 참을 인간이 확실하게 안다고 단언하기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지적 능력이 지닌 한계를 넘어서는 물음이 존재한다는 K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M은 Q에 대해 답하지 못하고 인간은 Q에 대해 답하므로, 튜링은 M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서 '약한 인공 지능'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② 괴델에 따르면 M이 Q에 대해 답하지 못하는 것, 즉 괴델 문장이 참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만약 M이 괴델 문장을 증명하면 모순이 도출되므로 결코 M이 괴델 문장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M이 형식적 증명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틀린 진술이기도 하다. ③ 괴델에 따르면 괴델 문장은 '산수의 형식적 이론 체계'의 공리와 형식적 증명 규칙에 의해 증명될 수 없는 문장이다. ④ 데이비스는 개별 인간이 Q에 대한 확실한 앎을 갖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따라서 그는 개별 인간의 능력과 개별 기계의 능력 간에 극복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한편 데이비스는 '긴 시간에 걸친 검증'처럼 여러 사람들의 능력이 합쳐지면 개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보므로 '여러 기계가 연결된 것'의 능력도 개별 기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데이비스가 '여러 기계가 연결된 것'의 능력이 개별 인간의 능력과 같거나 능가할 것이라고 볼 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데이비스는 '여러 기계가 연결된 것'이 답을 하는 것은 개별 인간이 답을 하는 것보다 더 낮은 신뢰를 갖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13. [출제의도] 지문에 쓰인 단어와 동음이의 관계에 있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부정(否定)'은 '그렇지 아니하다고 단정하거나 옳지 아니하다고 반대함.'의 뜻으로 쓰인 단어이며, ③의 '부정(不正)'은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옳지 못함.'의 뜻으로 쓰인 단어이므로 두 단어는 동음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14～17] 기술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60쪽

14.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세부 정보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계통수를 잘 그리려면 최근의 변이를 담고 있는 부분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공동 조상으로부터 분화된 최초의 변이까지 담고 있는 것을 비교 서열로 찾는 것이 좋다.

[오답풀이] ① DNA 염기 서열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분류학에서 몇 가지 형질 차이로 유연관계를 정하여 계통수를 그렸다. ② 유연관계가 가까운 종들은 근래에까지 같은 종이었다가 분화된 것들이다. 즉 근래에 분기된 것들은 유연관계가 가장 가깝다. ③ 유사도를 산출할 때에 활용될 수 있는 값들로는 각 염기의 비중이나 특정 염기의 개수, 서열에서 염기가 서로 같거나 다른 위치의 개수 등 여럿이 있고, 염기 서열의 무게도 포함된다. ⑤ 유사도를 구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가중치 같은 것을 부여할 때에는 DNA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한다. 따라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 유사도 산출 방법이 달라지기도 할 것이다.

15. [출제의도] 지문에 언급된 특정 내용의 이유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퓨린계인지, 피리미딘계인지 염기의 종류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는 것은 같은 위치에 같은 염기를 지니고 있을 때 그것의 종류에 따라 종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열의 같은 위치에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염기가 형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일수록 가중치를 높이는 것이다. 즉 시토신과 구아닌처럼 종류가 서로 다른 것들이 형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오답풀이] ② 가중치는 DNA 염기 서열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형질을 보고 유연관계를 먼저 밝힌 후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면서 유사도를 얻어야 유연관계를 알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수 있다. ③ 변이가 비교적 잘 발생하는 염기가 서열에 더 자주 등장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그것이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이유일 수도 없다. ④ 가중치는 같은 위치에 같은 염기가 있을 때 그 염기가 종의 고유한 특성을 담는 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정 종류의 염기가 위치에 따라 종의 고유한 특성을 담는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⑤ 유사도를 구할 때에는 같은 위치에 동일한 염기가 있을 때에 한해 가중치만큼 더한다.

16. [출제의도] 지문에 제시된 <그림>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면, 같은 위치에 동일한 염기가 있는 경우가 많은 조합일수록 유연관계가 가까운 것으로 계산될 것이다.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종2와 종3은 같은 위치에 동일한 염기가 있는 경우가 4개나 된다. 이는 다른 조합들보다 가장 많은 것이다. 따라서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았더라도 종2와 종3이 가장 먼저 가지로 연결되었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종2-종3은 종4보다 종1에 더 먼저 가지로 연결된다. 따라서 종3은 종4에 비해 종1과의 유연관계가 더 가까울 것이다. ② 계통수에서는 공동 조상이 있는 쪽인 아래쪽의 분기일수록 더 먼저 일어난 것이다. 즉 ㉮와 ㉯의 분기는 ㉰와 ㉱의 분기보다 근래에 일어난 것이다. ④ <그림>은 계통수 추론 알고리즘에 따라 그린 것이며 이 알고리즘은 '염기 서열 정렬'한 서열들을 대상으로 삼는다. 염기 서열 정렬은 공동 조상으로부터 분화된 최초의 변이까지 담고 있는 것을 비교 서열로 찾는다. 이는 염기 서열에서 가장 유사한 부분에 해당한다. 즉 <그림>은 염기 서열에서 차이가 가장 작은 부분을 비교 서열로 선정하여 그린 것일 것이다. ⑤ 지문의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그림>과 같은 계통수를 통해 각 가지의 분기에 영향을 미친 변이가 어떤 염기인지 알 수 있다. 즉 <그림>을 보면 ㉮와 ㉯의 분기를 일으킨 염기와 ㉰와 ㉱의 분기를 일으킨 염기는 서열에서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7. [출제의도]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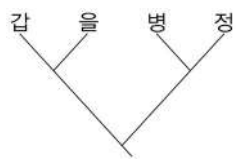
[보기설명] '가중치를 고려한 단순 유사도'를 기준으로 계통수를 그리는 상황이다. 각 조합별 유사도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갑	을	병	정
갑				
을	7			
병	4	4		
정	3	3	6	

즉 '갑'과 '을'의 유사도가 가장 큰 만큼 '갑'과 '을'이 먼저 가지로 연결된다. 이어서 '갑'과 '을'을 하나로 묶은 후 평균을 활용하여 조합별 유사도를 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갑-을	병	정
갑-을			
병	4		
정	3	6	

이 상태에서는 '병'과 '정'의 유사도가 가장 크다. 따라서 다음에는 '병'과 '정'이 가지로 연결된다. 최종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 '갑-을'과 '병-정'이 가지로 연결될 것이다. 즉 오른쪽과 같은 계통수가 그려진다.



[정답풀이] 가장 마지막에 연결된 것은 '갑-을'과 '병-정'이다. '갑'과 '을'에서 서로 같고, '병'과 '정'에서 서로 같지만, 그 둘이 서로 같지 않은 염기가 이 가지의 변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첫 번째 염기와 다섯 번째 염기이다. 두 번째 염기는 모두 같아서 해당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갑'과 '을'의 유사도는 7이고, '갑'과 '병'의 유사도는 4이다. 즉 3만큼 크다. ② 유사도가 클수록 유연관계가 가깝다. '을'와 '정'의 유사도는 3이고, '을'과 '병'의 유사도는 4이다. 즉 '을'와 '병'의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 ③ '갑-을'과 '병-정'이 가장 마지막에 연결된다. '갑-을-병'이 이미 묶인 상태에서 '정'이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병'과 '정'이 연결된 가지의 분기에 두 번째 염기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두 번째 염기는 모든 서열에서 같기 때문이다.

[18 ~ 21] 고전소설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옥주호연」 (수능완성 240쪽)**

18.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태조가 태후(= 황제의 살아 있는 어머니.)에게 유씨 자매의 일을 전하자 태후는 '인륜'을 정하여 주자고, 즉 혼인을 시켜 주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태조는 자신이 유씨 자매와 최완 형제를 중매하여 혼인시키겠다고 하고, 태후는 이에 동의하면서 유씨 자매와 최완 형제의 부모가 황성에 없으니 그들을 대신하여 유씨 자매는 태후 자신이, 최완 형제는 태조가 혼인을 주관하자고 하였다.

[오답풀이] ① 태조가 내린 유씨 자매의 벼슬 이름이 고사 속 인물들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그 인물들은 용맹함으로 이름난 영웅들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 혹은 여자의 도리를 지킨 것으로 이름난 여인들이다. ③ 태조가 물에 들어가라고 명하자 최완 형제는 반쯤 취하여 옷을 벗고 들어가려 하는데, 이러한 모습에 태조가 언짢아했다는 서술은 없다. ④ 유씨 자매가 물에 들라는 명을 거부하자 태조는 이들을 물에 넣으라고 무사들에게 명령한다. 이 장면에서 유씨 자매가 태조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태조는 '거짓'으로 화가 난 척을 했을 뿐이다. ⑤ 유씨 자매가 정체를 밝히지 않을 수 없게끔 태조가 강압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유씨 자매가 모자('사모')와 옷('조복')을 벗은 것은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며 '죄를 청하'기 위해서이다. 유씨 자매가 물에 들어가려 한 것은 아니다.

19. [출제의도] 발화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남자라면 그렇게 민첩할 수가 없으므로 여자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의미이다. 태조가 유씨 자매의 정체를 간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신은 유씨 자매의 민첩함을 근거로 그들이 여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유씨 자매처럼 수려한 용모가 남자 중에는 없다는 의미로, 이들이 여자임을 암시하는 말이다. ③ 태후는 유씨 자매가 '국가에 공덕이 크'므로 '인륜', 즉 혼처를 정해 주자고 제안하였다. (참고로 예로부터 혼인은 인륜지대사, 즉 인륜의 큰일이라고 일컬었다.) ⑤ 태조가 겉으로는 신하로서 임금에게 무례하게 말했다며 명주를 꾸짖고 있으나 속으로는 그 씩씩한 언사를 '아름다이 여기'었다. 따라서 이는 일부러 화난 척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두 발화를 적절하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명주는 태조의 명에 대해 '무도한 장난을 일삼으시며 국사를 생각지 아니하'는 것이라며 명령이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B]에서 자주는 태조가 '충성스러운 간언을 용납지 아니하'신다고 하여 태조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과거의 왕인 '요순의 다스림'을 언급하긴 하였으나, 상대인 태조의 과거와 현재를 대조하지는 않았다.

21.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유씨 자매가 '엎드려 죄를 청하'자 태조는 '거짓 놀라'는 척하며 '사실을 아뢰라'고 묻고 있다. 이는 태조가 자신이 유씨 자매의 정체를 간파했음을 숨기는 행동이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태조는 유씨 자매로 하여금 스스로 사실을 밝히도록 유도하고 하고 있다. 자신이 유씨 자매의 정체를 간파했음을 밝힌 것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태조가 '훗날 반드시 기묘한 일로 일컬어지리라'라고 말한 것은 유씨 자매의 정체가 알려진 뒤 이 벼슬 이름을 내린 것이 '기묘한 일'로 회자되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신하들은 자매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상의 뜻'을 알지 못했다. 이는 유씨 자매의 정체에 대한 정보가 인물들 간에 서로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② 최완 형제로부터 유씨 자매의 정체에 대해 전해 들은 승상에게, 태조는 자신이 이들의 정체를 드러낼 것이니 누설하지 말라고 한다. 이는 태조가 유씨 자매의 정체를 공개할 계획을 가지고 정보를 통제하는 모습이라 볼 수 있다. ③ 태조는 유씨 자매의 정체를 드러내려 하는데, 유씨 자매는 태조가 자신들의 정체를 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태조가 축하연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기미를 전혀 모르고' 물러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자들은 유씨 자매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될 것이다. ④ 태조가 '어룡희'를 보고 싶다는 이유를 들어 유씨 자매에게 물에 들어가라고 명령한 것은, 물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정체가 탄로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에는 자매들 스스로가 그들의 정체를 고백할 것이라는 생각에 바탕을 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면서 유씨 자매의 정체를 드러내려는 행동이라 할 수 있다.

[22 ~ 27] 고전시가-수필 통합

➔ **연계 지문 : 작자 미상, 「정석가」 (수능특강 44쪽)**
| 김상용, 「오륜가」 (수능특강 270쪽)

➔ **작가 연계 : 이규보, 「접과기」 (수능특강 73쪽)**

22. [출제의도] 핵심이 되는 시어를 중심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제2연>에서 화자는 '구운 밤'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날 때에야 임을 여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운 밤'은 싹을 틔울 수 없으므로, 이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사물에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상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결코 임을 여의지 않겠다는 뜻을,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오답풀이] ② <제3연>의 '연꽃'은 '옥'으로 만들어진 인공물이고 <제5연>의 '철초'는 철로 된 풀로서 자연물이 아니므로,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③ <제5연>의 '무쇠'는 '큰 소'를 만드는 재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 화자의 굳센 의지에 대한 비유로 쓰인 것이 아니다. ④ <제5연>의 '철수산'은 '철수(쇠로 된 나무)'가 우거진 산이고, <제2연>의 '세모래 벼랑'은 모래밭인 데다가 벼랑인 곳이다. 따라서 둘 다 생명을 영위하기는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⑤ <제6연>에서 '바위' 위로 '구슬'이 떨어져 깨어지는 상황은 임과의 사이에 초래된 위기 상황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 화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슬'들을 꿰고 있는 '끈'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어떤 시련에도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바위'를 굳건한 연대를 상징하는 사물로 보기는 어렵다.

23. [출제의도] 작품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일이 영원토록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말해 임과의 사랑과 임에 대한 신뢰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소망한다. (나)의 화자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도리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일관되게 임과의 사랑이 변치 않고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거나, 이로 인한 혼란스러운 심리를 내보이고 있지는 않다. ② (나)의 화자는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을 뿐, 세태에 관해 말하지는 않는다.

2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 따르면 [A]의 '물러간들 어떠리'라는 말은 임금이 잘못된 정치를 펼 경우 신하가 선택할 수 있는 처신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경우 신하는 임금의 곁을 잠시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임금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한 한탄과는 무관할뿐더러, 「오륜가」에도 변치 않는 충성의 자세가 형상화되어 있다는 <보기>의 서술을 참고하면, 임금을 향한 마음이 끊어지는 상황을 뜻하는 말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임금에게 '국궁진췌하'라는 것은 임금을 공경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힘써 섬기라는 뜻이다. ④ [A]의 '불합(=뜻이 서로 맞지 아니함.)곳 하면'은 임금과 신하의 뜻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신하가 충성스럽게 임금을 모시는데 임금과 뜻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임금이 신하의 간언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정치를 펼치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신하는 임금을 따를 수가 없을 것이다. 이와 달리 (가)의 화자는 임금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신뢰를 표할 뿐,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는 상황과 관련된 진술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25. [출제의도] 구절을 중심으로 두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바위 위에 접주')을 통해, '옥'으로 새겨 만든 '연꽃'이 꽃을 '삼동(세 묶음)'이나 피운다는, 불가능한 상황을 상상하며 제시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처음에 ㉡('과일나무 접붙이는 일')에 대해 '허탄한 것만 같'다며 불신을 보였으나, 나중에 접을 붙인 결과로 배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의심을 거두어들이게 된다.

[오답풀이] ① (다)에는 글쓴이 자신의 욕망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글쓴이가 ㉡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경계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나는, 곧 불가능한 일임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상상을 통해 임과 결코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의 결과가 자연의 질서를 깨우쳐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다)의 글쓴이는 ㉡의 결과에 대해 '처음에는 허탄하고 괴이한 것인 듯하다가 나중에는 진실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가 순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⑤ (가)의 화자나 (다)의 글쓴이가 특정 문제에 당면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과 ㉡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라 여겨지고 있는 것도 아니다.

26.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제2수>에는 '죽은 후에 말아스라(말아라, 즉 그만두어라)'에 금지의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 표현의 대상은 임금에 대한 '국궁진췌', 곧 임금을 섬기는 행동이다. '국궁진췌'를 '죽은 후에 말'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전심전력으로 임금을 섬기라는 뜻이지, 과도하게 임금을 섬기는 일을 삼가라는 뜻이 아니다.

[오답풀이] ③ <제3수>는 '여고슬금 하면'이라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부부가 화락하게 지낼 것을 권고하고 있고, '공경곳 아니면'이라는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부부가 서로 공경하지 않으면 '금수'와 다를 바 없다고 경계하고 있다. ④ <제4수>는 형제가 귀한 이유로 '일기로 나눴으니'를 들고 있다. 즉, 한 부모의 정기를 나누어 받은 사이임을 근거로 들어, 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함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⑤ <제5수>는 '나보다 나은 이로 가리어 사귀어라', '구이경지하여라'라는 명령형의 진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우 관계에서 실천해야 할 바를 강조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 '나'는 옛사람들이 소백과 한선자를 생각하여 팥배나무를 아끼고 가꾼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때 이 고사의 내용은, 대상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나무를 가꾸는 것으로 드러냈다는 것으로서, '나'는 이를 통해 '배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는 일로써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자 하는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아버지가 '소백과 한선자'를 본받아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었다는 내용은 없으며, 따라서 '나'가 아버지의 그러한 자세를 계승하려 한다는 진술도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③ '더러는 나무를 부여잡고 목이 메어서 차마 떠나지 못한 적도 있다'는 서술에서, '나'가 '배나무'를 대할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며 사무치게 그리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배나무'를 물려준 까닭에 대해, '혁비천선을 마땅히 이 나무처럼 하도록 하신 것이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28 ~ 30] 현대시

➔ **연계 지문 : 박남수, 「할머니 꽃씨를 받으시다」 (수능특강 86쪽)**

➔ **작가 연계 : 박용철, 「고향」(수능특강 80쪽)**

28.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는 할머니의 독백을 다룬 제3연과 손자인 화자의 말('글쎄 할머니/그걸 어쩌란 말씀이셔요.')을 인용한 제4연의 대화 상황을 통해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가)에는 대화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② (나)는 '채송화 꽃씨'를 통해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지만, 계절의 변화에 따른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29. [출제의도] 시어와 시구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하늘가에 새 기쁨을 그리어 보랴'는 설의적 표현이다. 여기서 '하늘가'는 훼손된 고향과는 대조되는 공간일 것인데, 화자는 이러한 공간에서 새로운 기쁨을 그리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소용없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쁨')이 긍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나)에서 '방공호'는 전쟁 중의 임시 피신처로, 할머니가 그곳에 '아예' 들어오시지 않고 '그저 노여우시다'는 것에서 할머니가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 노여워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따라서 ㉦('노여움')을 고통스러운 과거에 대한 자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무덤')은 '엄마'의 무덤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소중한 대상을 상실하였음을 환기한다. ㉤('채송화')은 전쟁 중에 살아남아 방공호 위에 피었다는 점에서 생명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③ ㉢('어디 찾는다냐')은 설의적 표현으로서, '모진 바람'에 '흩어진 꽃잎'이 쉴 곳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가혹한 현실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포하고 있다. ㉥('어쩌란 말씀이셔요')은 화자가 할머니를 달래려 한 말로, 전쟁이 벌어진 현실을 어떻게 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담고 있다. ④ ㉣('험한 발')은 화자의 고향을 훼손한 억압적인 힘을 비유한 표현으로, '짓밟힌'과 결부되어 그러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반감을 드러낸다. ㉧('이런 꼴')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탄식이 담긴 표현으로, '저런 꼴'과 함께 전쟁 현실 전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⑤ '서로의 굳은 뜻'은 '옛사랑'과 결부하여 볼 때 연인 사이의 소중한 약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화자는 이를 '남께 앗'겼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소중한 것을 빼앗긴 상황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은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한 진술이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30.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방공호' 위에서 꽃씨를 받을 뿐 그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할머니의 감정 상태를 두고 '그저 노여우시다'라고 표현한 것에서, 할머니의 '노여움'에는 목숨을 위협하며 평화로운 삶을 파괴하는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진작 죽었더라면'으로 시작하는 할머니의 독백 역시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담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노여워하는 모습이나 죽음을 가정하는 모습을 인간에 대한 증오나 생명 경시 풍조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엄마'와 '꿈', '고향'을 모두 상실한 화자가 '떠도는 구름'을 '따라' 다녔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 타지를 돌아다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멈추는 듯 불려 온'에서 '멈추는 듯'이라는 표현은 정체된 삶을 환기하고, '불려 온'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의지가 아닌 환경적 요인에 의한 수동적 삶을 환기한다. 이를 통해 화자가 십여 년('여남은 해') 동안 뚜렷한 변화도 없고 능동적 의지도 펼칠 수 없는 삶을 살아오며 정신적 방황을 겪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가)에서 '고향은 이제 찾아 무얼 하리'라는 진술은 삶의 원형이 상실된 고향을 회복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화자의 깊은 체념을 드러내지만, 삶의 원형을 지닌 고향의 옛 모습을 보여 주는 '아득한 꿈'에선 그곳으로 달려간다고 한 진술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체념과 그리움의 두 정서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작은 꽃씨를 받'는 태도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구가 깨어져 없어'지더라도 '할머니는 역시 살아 계시는 동안은' 그러한 태도를 변함없이 지켜 갈 것이라고 말하는 데서, 화자가 할머니의 삶의 자세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 ~ 34] 현대소설

➔ **연계 지문 : 염상섭, 「만세전」(수능특강 299쪽)**

31.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중 인물이자 서술자인 '나'가 중략 앞의 부분에서는 일본식 요릿집 점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고, 중략 뒤의 부분에서는 '형님' 집 부근의 거리 모습, 그리고 '형님'의 말과 태도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한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나지만, '나'와 그들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지는 않다. ④시간의 역전이 나타나지 않는다.

32. [출제의도] 발화나 진술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길러 준 조선인 어머니가 아니라 칠팔 년 전에 헤어진 일본인 아버지를 (사는 곳도 모르면서) 찾아가려 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그러한 선택이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대한 정('부모에 대한 자식의 정리')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니라 일본인으로 사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계산('어떠한 이해관계나 일종의 추세라는 타산') 때문일 것이라 짐작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얼굴을 들이대며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지 않느냐고 하는 말소리의 크기와 태도를 진술하면서, '나'는 '담바고 타령을 하던 계집애'가 '일인 애비와 조선인 에미를 가졌다는 계집애'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같다고 느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일인 애비와 조선인 에미를 가졌다는 계집애'는 부모와 헤어져 홀로 지내게 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는데, '나'는 그 웃음이 너무도 기가 막혀서 나오는 웃음같이 느껴졌다고 진술함으로써 상대방의 마음이 참담할 것이라는 짐작을 내비치고 있다. ④부산 시내에서 일본식 집밖에 찾아볼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온 '나'에게는 '형님'이 사는 동네에 생긴 변화도 예사롭지 않게 보이지만, '형님'은 자기 동네에 생긴 변화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⑤집값이 올랐다며 좋아하는 '형님'에게 '나'는 전쟁(제1차 세계 대전을 말한다.) 이후 모든 것의 가격이 올랐으며 어떤 것은 그 집값보다 더 올랐다고 대꾸하는데, 이는 동네가 곧 일본 사람 거리가 될 것이라면서도 자기 집 시세가 올랐다고 좋아하는 '형님'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속마음을 내비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세부 내용을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그 계집애'는, 대구에 산다는 어머니 쪽은 인편을 통해 소식을 알아보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자신이 '언문'으로 편지를 쓸 줄 몰라 편지를 할 수도 없다고 했으며, 칠팔 년 전에 일본의 '장기'로 떠난 아버지 쪽은 한참 동안은 소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오답풀이] ①자식과의 관계가 끊어진 조선인 어머니가 가엾다는 것은 '나'의 생각일 뿐('이 계집애의 팔자가 가엾은 것보다도 그 에미가 한층 더 가엾다'), '그 계집애'는 그런 생각을 드러낸 적 없다. ⑤'그 계집애'는 '이 설(이번 설)이나 쇠고 나건(나면) 찾아가 볼 테에요'라며,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찾아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이것은 진심으로 하는 말로 이해하기보다 자신을 무시하는 동료 점원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고 하는 말(일본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님을 상기시키려는 것)로 이해할 수도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적절하게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담바고 타령을 하던 계집애'가 '하고 싶던 이야기'는, '화롯불 가져온 아이'가 '예(조선)서 아주 자라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지, 자신의 어머니가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다. '담바고 타령을 하던 계집애'는 일본인이므로, 조선인인 '나'에게 동포를 만난 데서 비롯된 민족 감정을 느낄 리 없다.

[오답풀이] ②'얼굴이 주홍빛이 되고 눈초리가 샐룩하여'지는 것에서, 일본인 동료 앞에서 '어쩐지 조선 사람 어머니를 가진 것이 앞이 굽는' 일이라 여기는 듯 보이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미루어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게 차별과 무시를 받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③'조선 사람 어머니에게 길리어 자라면서도 조선말보다는 일본말을 하고, 조선 옷보다는 일본 옷을 입'게 되었다는 서술은, 조선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조선말보다는 일본 말을 하게 하고 조선 옷보다는 일본 옷을 입게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딸이 스스로 일본 말을 하고 일본 옷을 입는 쪽을 선택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양쪽 다 조선에 대한 차별의 피해자들이 스스로 조선보다 일본이 낫다는 차별 의식을 내면화한 양상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

[35 ~ 37] 화법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96쪽**

35. [출제의도] 토론의 입론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기존 방식인 도서 정가제하에서 독서 인구가 감소했다는 점, 책의 폐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 등의 부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기존 방식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토론의 반대 신문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찬성 1'은 [B]에서 '도서 정가제로 동네 서점이 살아남게 된다고 하셨는데'라고 하여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 보여 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상대측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37. [출제의도] 토론의 내용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반대 측은 도서 정가제로 인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을 막론하고 같은 책을 비슷한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동네 서점의 가격 경쟁력이 온라인 서점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38 ~ 41] 작문 - 화법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53쪽**

38. 자기소개서에 반영된 내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첫째 문단에 지원 동기(㉣)가 드러나 있으며, 둘째 문단에 지원자의 성장 배경(㉠)이, 셋째 문단에 지원 분야와 관련된 의미 있는 활동(㉢)이 반영되어 있다.

39. [출제의도] 자기소개서에 적용된 글쓰기 방법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넷째 문단을 보면, 지원자는 사진 공모전에 출품해 수상한 경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듯 이미 실력을 검증받은 ~ 일원이 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임을 드러내고 있다.

40. [출제의도] 면접에 활용된 질문과 답변 전략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에서 '면접관'은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지원자'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점, 그러니까 지원자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려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서 언급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근거로 들어 답변하였다(㉮).

[오답풀이] ②, ③[B]에서 '면접관'은 중학교 때 사진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언급하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는지 좀 더 이야기해 달라고 물었다(ⓐ). 이에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일화인, 부원을 모집하기 위해 점심시간마다 사진 작품을 들고 서 있었던 홍보 활동을 소개하며 답변하였다(㉰). ④, ⑤ [C]에서 '면접관'은 지원 분야에 들어와 특별히 기획해 보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에 '지원자'는 자기소개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신문 기사의 내용을 언급하며 부원들과 함께 우리 시가 개최하는 특별 사진전에 출품하는 일을 기획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41. [출제의도]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답변을 정리하여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42 ~ 45] 작문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157쪽

42. [출제의도] 작문 맥락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글을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일상의 체험을 기록하는 글이고 (나)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나)는 (가)와 달리 리바운드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나)에 따르면 텀블러나 에코 백을 사용하는 것은 일회용품 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는 바람직한 행동이다. 또한 리바운드 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텀블러나 에코 백과 같은 대체용품을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여 오래도록 사용해야 하므로 텀블러나 에코 백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3. [출제의도] 글을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셋째 문단에 텀블러나 에코 백 등 대체용품을 환경 보호 효과를 얻을 정도로 반복해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체용품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글의 마지막 문단을 고쳐 쓴 이유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 '혹시 지금까지 ~ 해 온 것은 아닐까?'라는 문장이 추가되었다. 이는 예상 독자들이 환경을 보호하겠다고 텀블러나 에코 백을 구입하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아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신을 성찰해 보도록 하는 질문이다. 또, 마지막 문장에서는 '다시'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재사용해야'의 '재-'와 의미가 중복되는 표현이다.

45. [출제의도] 추가로 수집한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글을 보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ㄱ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대체용품의 경우에는 최소 사용 횟수 이상 사용해야 환경 보호 효과가 있다. 이 자료에서 일회용품 역시 그러할지 모른다는 추측을 할 수도 있으나 ㄴ에 따르면 일회용품은 매립 시와 소각 시 모두 환경을 오염시킨다. 그러므로 ㄱ과 ㄴ 두 자료를 활용하여 대체용품의 경우와 같이 일회용품 역시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고 버릴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할 수는 없다. 참고로 대체용품의 경우에도 폐기 시 환경을 어느 정도 오염시킨다.

[오답풀이] ③ㄷ을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대체용품의 재료와 유통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B]의 소비자들에게 요구되는 노력 부분에 추가할 수 있다.

•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

[35 ~ 39] 언어

35. [출제의도]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단어를 올바르게 분류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238쪽

품사를 '기능'을 기준으로 나눌 경우, '관계언'은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조사를 이르는 말이고, '수식언'은 뒤에 오는 말을 수식하거나 한정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는', '을', '에'는 모두 조사이고, '두'는 관형사, '쓱쓱'은 부사이므로 ②의 진술은 모두 맞는다.

[오답풀이] ①'가변어'에 해당하는 단어는 용언뿐이다. '쓱쓱'은 부사이므로 가변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독립언'은 독립적으로 쓰이는 감탄사를 이르는 말이다. 제시된 문장에는 감탄사는 없다. ④'알'은 명사에 해당한다. ⑤'큰'은 형용사이다. 형용사의 어간 '크-'가 관형사형 어미 '-ㄴ'과 결합하여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36. [출제의도] 품사 통용과 자동사, 타동사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59쪽

'아이는 고집을 꺾었다'를 통해 현대 국어의 '꺾다'가 타동사로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꺾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로만 쓰이며,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동사 '꺾이다'가 '나뭇가지가 꺾이자'와 같이 자동사로 쓰인다.

[오답풀이] ①'서로의 결점'의 '서로'는 명사이고, '서로 돕고'의 '서로'는 부사이다. ③'비취다'가 ㉢에서는 자동사로, ㉣에서는 타동사로 쓰였다. ④'좋아지다'는 형용사 '좋다'에 보조 동사 '-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동사이다. ㉤의 '됴ᄒᆞ샤(좋아져)'를 통해 중세 국어의 '둏다'가 동사로도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관형절의 생략된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완성 101쪽

'친구는 동생에게 말을 걸었다.'에 '동생이 집에 돌아오다.'가 안기면서 '동생이'가 생략되었다. 여기서 '동생이'는 안긴문장의 주어이다.

[오답풀이] ②'그가 종이를 모아 놓다.'가 안기면서 목적어 '종이를'이 생략되었다.

38. [출제의도] 로마자 표기 원칙을 바탕으로 로마자 표기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23쪽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지만, 체언에서 일어난 거센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체언 '묵호'는 [무코]로 소리 나도 'Mukho'로 적어야 한다.

39. [출제의도] 단어의 유의어에 대해 이해하고 그 쓰임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85쪽

'그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의 '눈'은 제시된 유의어 중 '표정'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

[오답풀이] ②'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지는 마라.'의 '눈'은 '관점'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③'강 여사는 눈이 나빠 안경을 써야 했다.'의 '눈'은 '시력'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그런 걸 사다니 정말 보는 눈이 없구나.'의 '눈'은 '안목'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다른 곳으로 갑시다.'의 '눈'은 '시선'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40 ~ 42] 매체 - 언어 통합

➔ 연계 지문 : 수능특강 242쪽

40. [출제의도] 서로 다른 매체의 특성을 적절하게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종이 신문이어서 댓글을 달 수 없는 (가)와 달리 (나)는 인터넷 신문이어서 수용자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댓글을 달 수 있다.

41. [출제의도] <보기>를 참고하여 기사를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와 (나) 모두 청소년의 신조어 사용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통계를 사용하여 청소년과 다른 세대의 신조어 사용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42. [출제의도] 매체 자료의 언어적 특성에 대하여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부사격 조사 '에서'가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에서 '일상 언어 생활'을 장소로 볼 수는 없다.

[43 ~ 45] 매체

43. [출제의도] 매체의 특성에 대해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23쪽

(가)에서 자신이 작성한 문서 자료를 공유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휴대 전화 메신저의 특성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모두들 바쁠 테니 따로 만나기보단 메신저로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라는 '세하'의 말을 통해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지 않고서도 대화 참여자들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세하'는 특정 사람들('지호', '영지', '찬우')을 대화방에 초대하여 의사소통이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초안에 반영된 매체 자료의 제작 계획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71쪽

㉠에서 언급된 예상 독자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다. 그러나 인포그래픽의 최상단에 배치되어 있는 제목인 '덜 달게, 더 건강하게!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줄이자!'에서 예상 독자가 드러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5. [출제의도] 수정 의견을 반영하여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연계 문항 : 수능특강 177쪽

'지호'는 표 하단에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할 경우 질병 발생률이 높아짐.'이라는 설명을 덧붙여 주자고 하였다. 그러나 '1일 섭취 권고 기준에 따라 당류를 섭취해야 함.'이라는 설명이 표 하단에 추가되었으므로 ㉤는 적절하지 않다.

이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주)이감에 있습니다.